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2호 [루게 제24980호] 주제104(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주제104(2015)년 7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준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들을 통하여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있는 선거자들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는 2만 8,452명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일꾼들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이번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

적인 정권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결속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투쟁하고있는 진정하인민의 대표들로 공화국의 지방주권기관을 꾸림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주제104(2015)년 7월 20일

평양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모든 전선에서 애국총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자

불멸의 전승업적 대를 이어 빛내이리

각지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사업 활발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은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40(1951)년 1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년 7개월동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정하고계시면서 침략자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주신 전승의 성지이다.
지난 6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짜고들어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팔같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활발히 조직진행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는 최고사령부지휘처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주체전법, 무비의 담력과 배짱, 고매한 인민적품도를 전하는 사적점들과 사적물들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실물교양의 거점인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잘 조직하는것은 현시기에 전체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시 당조직에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곁잡힌 선과 시편을 해치시며 위대한 전승을 안아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일꾼들에게 깊이 심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집무실, 작전실 등을 돌아보면서 성의 일꾼들은 전쟁의 매 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비행기사양군공운동, 땅크사양군공운동, 강도전 등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전설적영웅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였다.
형제산구역의 여러 기관, 기업소들과 평안남도계급교양관, 순천화력발전소의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도 조국해방전쟁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고있다.
참관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공화국영웅 및 보병전투원들을 만나시여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부여주시고 몸소 불투의 고전적 명작 《사형7》를 부르신 뜻깊은 사적이 어머없는 곳을 돌아보면 시 절세의 애국자의 열렬한 조국애와 그 어떤 피성백병에도 끄떡하지 않는 명장의 담대한 기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기였다. 그들은 최고사령부지휘처를 돌아보면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대대하는 력사적전투원 최고사령부지휘처를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덧없는 명예시며 반미항전을 승리로 이끄신 천출명장의 위인상이 가슴에 안겨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남새를 심고 가우신 포전과 수심마리의 닭을 키우시던 닭장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품도와 전회의 불길속에서 승리한 조국의 패일을 내다보시며 우리 나라 가급적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백두명장의 천리혜안의 예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성공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당,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청년대학생들을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역세게 준비시킬 목적으로 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위하여 조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집무실에서 뿜은 기총탄자리와 최고사령부지휘처에서 얼마 안되는 문턱에 박혀있는 불발탄을 보면서 청년대학생들은 력사에 투여한 간고한 시련과 위함을 헤치시며 반미항전을 승리로 이끄신 천출명장의 위인상이 가슴에 안겨와 감동을 금치

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같은 맹세로 심장을 끓이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 당, 근로단체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줄 의지를 다지였다.
뜻깊은 전승일이 다가올수록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자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전승의 성지에 깔렸어 흐르는 이 총정의 대하는 백두산위인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선군조선의 강성번영사와 더불어 만대에 빛내여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전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물길굴상부피복공사과제 완수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청천강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의 중요공사과제인 최후3호발전소 물길굴공사에 계속 빠른 속도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7월에 전담 같은 기간에 비해 물길굴확장실적이 1.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부피복공사과제가 빛나게 완수되었으며 하부확장공사에서도 계속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교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장지휘부의 책임일꾼들은 물길굴공사장의 지휘력량을 보강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한편 지난 5월 초 전담한 구조물공사를 속 앞세운 6개 단위 돌격대령들을 동원하여 불려나온 채취공정성터전에 집중시키었으며

자신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화선식정지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면서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에도 힘있게 고수추진하였다.
이 과정에 물길굴구간에서 리체전이 드세게 벌어져 확장실적이 높아지고 종전보다 비껴쳐 리를 위한 평가가동물이 1.5배로 뛰어들었으며 불려나온 조건에서도 많은 량의 콘크리트피복공사과제가 수행되는 혁신이 창조되었다.
새로 조직된 지휘력량은 최후발전소 물길굴공사에서 발휘하였던 그 투지와 기백으로 불려나온 운반조건을 타개하며 원형철관회로의 개수를 부쩍 늘이는 한편 새로운 발파방법에 의거한 굴진전투와 자동차, 트랙터도 동을 리용한 비록은반전투를 통하여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 평안남도터전에 달려나간 전투원들은 함리적인 확장 및 피복공사방법을 받아들여면서 선봉적역량을 하여 많은 상부피복공사과제를 넘겨주며 해제는 자랑을 떨치였다.
철도성, 남포시, 황해남도터전과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전투원들은 물길굴공사물자

신들이 함께 책임졌다는 비상한 자각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매일 수심m구간의 상부피복공사실적을 올리였다.
자강도터전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1차와 2차는 물론 3차, 4차 확장공사들에서 앞선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골짜기 혼합물운반을 광차와 자동차로도 추진하여 피복공사속도를 부쩍 높여왔다.
한편 제2차 전국청년미공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받아안고 건설장으로 돌아온 즉시 물길굴막장으로 탄원한 수십명의 청년건설사대원들도 청춘의 열정에 넘쳐 피복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몸 단단히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최후3호발전소 물길굴공사를 제기일에 훌륭히 끝낼 한마음으로 펼쳐나선 이곳 전체 전투원들의 비상한 자각과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물길굴하부확장비려처리성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류 기 풍

주체철생산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금속건설사업소에서

보산제철소에서 또 한기의 주체철회전로가 건설되고있다.
이미 3호주체철회전로를 건설한 것과는 비교되는 금속건설사업소에서 4호회전로건설을 또다시 마쳤다.
10월의 대축전을 커다란 로력성공과로 맞이할 불같은 마음을 지닌 이곳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기초공사와 남은 산업구조물해체, 수심m에 달하는 육중한 주체철회전로의 동체조립이 기본적으로 끝났다.
여러가지 제판들과 장치물 제작, 설비조립으로 세차게 풀이반지는 건설장에서는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는 가운데 4호주체철회전로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며 완공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을 생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속공업에서는 당장전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끈적끈적한 작전들을 펼치였다. 그중의 하나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생산능을 높일수 있는 보산제

철소의 주체철생산능력확장공사이다.
금속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 뚝고나기며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그들은 품이 맑아 드는 낫은 산업구조물해체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을 짊어 짊어는 기간에 해체되고 본격적인 회전로동체조립에 일제히 들어갔다.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창조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현존설비로는 들수 없었던 중량물을 기발한 착상으로 들어올려 수심m에 달하는 회전로동체부본들을 조립해나갔다. 합리적인 지구장비들을 창안도출하고 수많은 부속품가공도 자체로 하여 많은 대상공사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일꾼들은 불같은 현장에서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며 결된 문제들을 알자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설비, 제판부문의 로동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단위들에서도 기능이 높은 용접공들을 수습명이나 인입하여 탄력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로력배치를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전력보장이 긴장하지만 제판과 장치물제작 및 조립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일심단결투목표와 설비, 자체보장설비를 면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고있다. 한편 기술학습을 조직하고 공정점사를 강화하여 최대한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보산제철소의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4호주체철회전로공사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여 강철생산능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대상공사로서 이 공사가 끝나면 보산제철소의 주체철생산능력은 크게 높아지며 지난해 새로 건설한 선별장의 덕으로 질 좋은 주체철을 더 많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장하게 된다.
보산제철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사를 합15개 책임진 팀장에서 4호주체철회전로건설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힘동공보장을 맡은 편만단위들에서도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많은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특히 원산통공기공장, 동림방산기계공장, 평양전동기공장, 평양자동차회기구공장, 성천강건기공장 등에서 설비와 부속품보장을 잘 하였다.
본사기자 전 성 삼

발전설비를 실은 집중수송렬차 도착, 설비운반전투 결속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앞장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만든 대상설비들이 련이어 도착하고있다.
지난 14일 경성에서자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단로기, 차단기들을 2대의 자동차에 싣고 2호발전소건설현장에 찾아온데 이어 철도운수부문의 일꾼들과 수송전차들이 대원의 로동계급이 만든 발전설비를 실은 첫 집중수송렬차를 15일 무산역에 도착시켰다.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수송전차들은 백두대리로 달려오는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힘과 용기를 배하며 집중수송렬차를 줄기차게 벌려 단 4일만에 화차 10량에 달하는 발전설비들

이 사명지휘체제를 더욱 강화한데 기초하여 성취일일꾼들이 련차의 중중을행정함을 매일매일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집중수송렬차를 무산역까지 성과적으로 도착시켰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현장 지휘부와 인민부령부 현장 지휘부의 일꾼들이 발전설비운반을 하루빨리 끝낼 목표에 무산역으로부터 2호발전소건설현장까지의 집중수송전투에 불을 붙였다.
무산역에 지체없이 나간 해당 일꾼들은 현지에서 직접 발전설비를 화차에서 부리고 자동차에 실기 위한 전투를 지휘하였다. 해당 부문의 편제팀에 상하차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결된 문제들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인민부령부 집중수송대의 군수대대의 운전자들도 발전설비운반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인민들이 발휘하고있는 군기질, 군인분배를 따라배워 적제용량보다 무거운 대형연압기를 대담하게 싣고 운반한것을 비롯하여 중요부분 품수송에서 백두정훈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자동차집중수송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단 4일만에 2호발전소 발전설비총량의 75%에 달하는 수백의 발전설비들이 현지에 도착함으로써 7월말부터 발전설비조립을 시작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발전설비를 실은 집중수송렬차 도착, 설비운반전투 결속



정론 백두산과 청년춘추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내려지는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하며 -

1

은 조국이, 인민이 기뻐한다. 10월의 선물을 위해 누구나 결사건에 나선 이 땅에 반격해 전태지는 소식들은 그 열매이다. 임일이 기록만 하자고 해도 가슴빠듯한 그 많은 소식 가운데서도 제일로 후련하고 힘이 솟게 하는것은 우리 원수님의 기상으로 용감부양하게 진격하는 백두청춘의 승전포성이다.

혁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에, 우리 혁명의 가장 성스러운 땅에 조선의 청춘들이 세워 주는 위대한 기적의 탑—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무엇으로 하여 백두청춘의 투쟁소식은 그처럼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것인가. 조선혁명의 가장 고귀한 부름들을 안고 태어나는 이 발전소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긴 당의 의도는 무엇이고 천천천을 맞받아 세월을 주름잡고있는 열혈의 가슴들에 끓고있는것은 또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교양교육되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입니다.》

거창한 번혁의 전기가 우리앞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상을 뉘튼든 유명한 시대를 처음으로 떠쳐주시는 력사의 지점에 우리가 있다.

인간의 놀라운 힘을 직접 볼수 있는 위훈의 대형전경화, 결집하면 못할것 없다는 신심을 배배해주는 승리의 대적전장이다.

볼과 두달동안에 7만 4,000㎡이상 달하는 연세프리트라이프가 진행되고 2호물결 전구간에서의 상부비복용사가 끝난데 이어 1,000㎡상의 바닥복설이 기록되었다. 이처럼 거대한 연세가 20m나 경중 뛰어들고 나무만 무성하던 산기슭에 눈썹박막 사이에 백두봉 능선아담 살림집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는데 비호하여 10년을 맞닥뜨렸다는 기적이 여기서는 매일, 매 시각 창조되고있는 것이다.

안아보자. 미덥고 또 미더운 백두의 용사들이여, 그대들은 조국앞에 얼마나 장한 일을 해 놓고있는것인가.

소문없이 열여섯 백병전의 낫과 밧, 피에 젖고 땀에 절은 밀렵속의 전구들을 찾아보세.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다는 긍지로 심장의 퍼가 뚫는다.

우리나라는 청년강국입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볼드 없는 청년강국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지난 4월 그토록 그러했던 백두산의 아들딸들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 얼마나 만족하시어 말씀하시었던가.

청년강국, 존엄높은 조국의 또 하나의 이름이 저 멀리 북편 이름없는 산중에서 태어날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누구도 알수 없었던 지어는 그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도 다 헤아릴수 없었던 격전의 의미, 력사의 울림을 그이께서 울려주시었다.

행진은 뜨겁고 백조자라는 날리지 않았고 여기서서 그 누구를 만나도 살아있는 투사들을 다시 보느것만 같다. 어둠과 가시나 백두산발바닥속에서 서있는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에 힘이 솟아오른다.

몸너무물 다들어 세운 돌격대명사들은 오늘의 백두산귀환이요 혁혁한 대렬행진은 산관을 울리던 유격대의 발걸음소리이다. 전투적인 속보관들은 백두산의 기백으로 백백하고 산뜻한 정양소는 백두산의 정서로 가득차있다. 자제로 꾸민 풍구기들은 무엇이든 척척 만드는 《밀렵속의 병기창》이 드넓은 부업지대 풍성한 창고, 호젓한 집집승우리들에게는 오늘의 유격대군수관들이 있다.

얼마나 어엿하게 자랐는가. 그들은 불꽃은 집에 뛰어들어 절세의 위인들의 초상화를 모셔내오며 오종훈 7현대의 나팔소리를

또다시 울렸고 격전의 열광에도 푸른 숲을 가꾸며 열렬한 조국애를 키웠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하루에도 수백번 달리고 달려면서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던 백두산의 정신을 알게 된 청년들, 죽음을 맞받아 물결을 뚫으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투사들의 목소리를 심장에 새긴 혁명가들, 동지를 위해 떨어지는 바위에 몸을 날리며 천군구도 살수 없는 동지애의 세계를 체험한 인간들,

이들이 파인 또다시 태어난 항일의 투사들이 아니라 말인가. 혁명의 장례를 기복속에 신수 맡길만한 한 대적하고 미더운 세세대들이 아니라 말인가.

존엄한 폭풍의 년대들을 청년의 이름으로 빛내인 전세대들의 넋이 백두청춘을 힘껏 포용한다.

대를 이어 이 나라 청춘들을 자레워준 어머니산—백두산이여, 너의 성스러운 자락에 신념의 뿌리를 두고 불굴의 혁명가로, 투사로 자라난 조선의 청춘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실현공이 힘쓰는 협한 산중에서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조선의 현대, 만대가 떠날때 불멸의 혁명정신을 창조한 1세대 청년투사들, 그 정신을 이어 불멸의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턱으로 증기압철을 누르며 침략자들을 죽인 전파의 민청원들이 태어났고 천리마시대를 기적으로 빛내인 《어머니의 혁명정신》이 생겨났다. 우리 장군님 시대의 불굴로 성장한 북부철결영웅들도, 고난의 피사슬을 짊어 버리며 강강강국의 대령로를 연 청년영웅들도 전설자들도 백두의 넋을 심장에 지닌 백두산의 아들딸들이었다.

오늘 만사함을 감동시키고있는 강선의 《처녀어머니》며 순우리말의 처녀교원, 대홍난의 평양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미공의 선구자들도, 백두산총대와 함께 청춘을 빛내어는 병사들과 백두산의공적전열로 조국을 지키는 전설자들도 백두의 넋을 심장에 지닌 백두산의 아들딸들이었다.

오늘 만사함을 감동시키고있는 강선의 《처녀어머니》며 순우리말의 처녀교원, 대홍난의 평양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미공의 선구자들도, 백두산총대와 함께 청춘을 빛내어는 병사들과 백두산의공적전열로 조국을 지키는 전설자들도 백두의 넋을 심장에 지닌 백두산의 아들딸들이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시대를 전가하며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이 전민민항창곡의 환형의 의미를 백두청춘은 경배한 음악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깨달았다. 왜 봄날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야 하는가. 왜 눈보라로 가고 대를 이어 가야 하는가를 가장 생동하게 증명해준 백두전투이다.

바로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여기로 보내신것이었다. 조선청년의 진정한 힘은 백두산의 힘이기때, 조선청년의 아들딸은 미해도 백두산에 있기에 한 글자도 안글자 혁명의 귀중한 부름들을 들려대어 몸과 새겨주시며 그들을 유서없는 혁명의 전구로 불러주시는 우리 장군님.

그렇게도 생생하게 투사들의 넋을 체험한, 그렇게도 용감하고 혁혁하게 자라난 이런 미더운 청년들을 보시었다면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 또 얼마나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던가.

참으로 백두산은 조선청년의 영원한 넋의 고향이다. 왜 이 땅의 청년들은 백두산에서 자라는가. 백두산은 정녕 무엇이기에 그토록 신비한 힘으로 이 땅의 세 세대를 불굴의 인간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우는가. 결코 력사가 유구해서도, 산이 웅장해서도 아니냐.

여기에 백두청춘들이 있지 못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눈보라치는 설비운반장에서 대오는 지치고 목마치 쉬어 돌격진로를 떠는 내릴수 없게 된 한 력단장이 신호기를 눈길속에 박고 한자한자 새긴 글발.

《가자, 매일은 2월 16일! 동무들, 백두산해돋이를 마중가자!》 순간 그 어떤 힘으로도 일으켜세우지 못할만 같았던, 그렇게도 지치고 쓰러졌던 전 대오가 불사신처럼 땅을 차고 일어났다. 백두산! 그렇게도 신성한 곳이었다.

내 나라 삼천리, 편편히 뻗어내린 천만산악을 품어안은 조공의 산, 이 력사의 거봉을 바라 볼 때면 어버이수령님 칠칠히 하시던 교사가 들려 온다.

백두산은 김일성의 백두산인 동시에 김일성의 백두산이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산. ...

항일의 20성상,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청춘시절이 여기서 울렸다. 바로 여기서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정신을 백두산에서 시작하셨었다.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시어 일생을 두고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우리 수령님, 몸소 해주—하성사이 철도부설전투에 나오신 이 건설자에서 먹는 소박한 밥과 국, 반찬까지 한가지, 한가지 맛보아 주시고 이 공사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자신의 건강보다 청년들의 위훈을 축하하여 먼저 추배함을 들어주시던 그 사랑은 얼마나 이 나라 청년들을 무메이게 했는가.

북부철결, 눈보라사나온 그 형식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내실 때 우리 장군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파하셨던가. 그러나 거기서 참고 이겨낸 청년만이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수 있기에. 자기께서는 청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는 세우려는 문제는 그토록 엄하게 만류하시면서도 자기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기념물을 잘 세워주시고 생각하셨다고 하고 그 말씀, 력사에 전무후무한 자신의 공적우에 우리 청년들의 후원을 놓아주시고 그 소중한 사랑을 피는물의 언덕을 넘어서야 알고 온 나라 청년들이 울고 인민이 울었다.

백두산과 청춘, 그것은 정령 위대한 수령님들과 청춘이라는 말과 같다. 백두산에서 자라나는것은 곧 영명하신 그분들의 이름을 승려로 간직하고 그따로운 몸에서 성장한다는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백두의 넋을 친척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갈처럼 연대다.

어느 나라 청년들에게나 백두산과 같은 고향이 있는것은 아니다. 백두산 세계의 많은 청년들은 우리미한 페락과 소비의 거리, 생존을 위한 가혹한 돈벌이의 전장에서 사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젊은 세대때만은 골짜기를 알고 된것은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현문제로 되고있는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가. 맑고 청신한 백두산의 공기를 마시며 첫걸음을 떼는 청년과 어찌러 생생한 정령의 소용돌이속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은 그 정신적정장과 인생판에서 하늘과 평행한 자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을 참답게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날수 있는 위대한 정신적 고향을 가지고있는 조선청년들은 얼마나 복받은 청년인가.

백두청춘은 자기의 뚜렷한 성장으로 또한 이 시대의 빛을 울렸다.

오라, 백두산으로! 세 세대들이여, 누구나 백두전투로 달려오라. 조선청년운동의 피를 거둔 곳이다. 이어나가서, 대 조국의 참된 주인공이 되거라. 백두산, 백두산의 넋을 심장으로 간직하라.

우리 당은 얼마나 청년들을 내세웠으며 청년들의 기개와 위력을 펼친 대외와 모임을 또 얼마나 했는가. 그러나 청년강국이라는 시대의 오직 백두산기슭에서 태어났다. 백두산은 오직 백두산기슭에서 태어났다. 백두산의 본질은 백두산에 있으며 오늘날 백두산전투는 그 청년강국의 속도,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 백두산을 모르는 청년은 조선청년이 아니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지 못한 청년은 청년강국의 청춘이 될수 없다.

정령 청년강국이 한 무엇인가. 그것은

백두산의 넋을 장그러 체현한 청년혁명가들, 당의 평도를 목숨처럼 간직하고 고난앞에서도 역세게 일떠서는 수백만의 세 세대들을 가지고있는 강대한 나라이다. 우리 당은 이 위대한 청년강국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탄생시킨 걸출한 당, 혁명의 계승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공지높은 당이다.

이처럼 강하고 깨끗하고 정의로로운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우리 당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 세상이 이보다 우월한 힘은 없다. 이것은 백두산기슭에서 또다시 확충된 력사의 진리이다.

2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혁명의 세 세대는 과연 어떤 혁명가들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백두산기슭으로 와보아야 한다.

해발 1,000m를 헤아리는 무인산중, 한해고 7여 3~4개월밖에 숲을 벗을 수 없다는 흑한속의 고산지대에서 돌격대원들이 싸우고있다. 한해에 천번의 눈과 비가 온다고 그 이름도 천수로 불리우는 고장, 산이 너무 험해 한줄기 오솔길마저 끊겼던 거기에서 청년연애가 초고있다.

백사의 그날 우리 원수님 말씀하신것처럼 다른 나라 청년들은 돈을 주며 오라고 해도 오지 못했던 곳, 고향의 부모들도 편지조차 안나가는 곳, 그러나 천수원들은 비닐박막집을 짓고 불에 달군 철관우에 존함물을 덩어리면서라도 결코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 함마와 정대로 한치한치 바위를 깨고 차터한 물속으로 흠대물 지고 험악이 달려면서서 사사사간마다 아가와 담은 강성이 한중으로 매식을 에우던 청년들 적대원들이었다.

우리 당은 왜 청년들을 이런 북방의 엄혹한 곳으로 보냈는가.

그것은 세 세대들을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는 불굴의 투사로 키우기 위해서이다. 백두산에 선다 그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것이 아니다. 투사들의 정신을 껍에서 잃고 전세대의 위훈을 영화로 본다고 해서 새시대의 주인공이 되는것이 아니다. 시련을 시련인 백두산의 시련을 이겨내야만 이질적인 혁명 조선의 청춘으로 자랄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칼바람을 사랑하는 청춘, 시련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은 조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해주—하성사이 철길과 이천—세포사이 철길, 송남청년련합과 남흥청년화련합기업소, 주세사상량과 광복거리... 인생을 노래한 백두산의 많은 창조물들이 시련속에서 싸우고 시련속에서 강해진 조선청년운동의 전통을 말해주고있는가.

백두청춘은 시련속에서 성장하는 또 한 세대의 조선청년들이다.

《우리는 눈속에서 한중을 한다.》며 길길이 쌓인 생생한 것을 해쳐 설비들을 싣고 오던 그날들이 아니었다. 무거운 막돌마데메고 이따히 높은 언덕까지 하루 40분이 나 오르내리면서, 흠뻑이 떨어지는 마데메고 달리고 또 달리면서 그들은 항일의 눈보라만리란 어떤것인가를 체험하고 청년영웅으로의 마데메이아기를 배에 새겼다.

가야 할 길은 아직 얼마이며 넘어야 할 협산준령은 그 몇인가. 시련에 한 가지기름을 해쳐 우리 혁명을 수행해야 할 계승자들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고난이 겹갈고 우리를 허물어보려는 원수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강하고 또 강하게 했다.

백사의 그날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청년들을 교양하고 단련시켜 주며 그들을 열렬한 조국애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절절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새겨수복 뜻이 깊은가.

시련과 역경속에서 청년들을 키우는것, 바로 여기에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는 영웅적인 사랑, 우리 당 청년영웅사상의 핵이 있다.

천만민! 이 세상에 아무리 희열이 많다고 해도 천군만마를 얻은 장군의 희열에 비길수 없다. 우리 원수님께 끝없는 청년들이 그날 크나큰 힘이 된다던 그이의 가장 총명한 혁명전사사 사는것은 우리 청춘들이 꿈에 또 비라는 궁지에 몰려있다. 바로 그것은 그이의 위업을 받들어갈 참된 전우, 그이께서 언제나 믿고 의지할 진정한 백두산전투를 신드나신다는것이다.

굴진속도는 원수님께로 달리는 우리 마음의 속도!

어려울때나 기쁠때나 늘 부르면 《HCH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 그 노래가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종업원들속에 세상에 들도 없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 시키고있다.

일꾼들과 선동원들이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소개한 도서와 당보 등 출판물을 가지고 현장

에 나가 독보와 해설모임을 실시하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꾼은 작업의 일환에 종업원들의 무릎을 마주하고 구제적인 사실 자료들을 싣며 들어가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우월성을 실감 있게 해설해주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

뜻밖에도 온 갱이 물속에 잠겼을 때 차오르는 물속에 매복을 띄우고 그것을 어깨로 버리면서 순간도 착암을 멈추지 않던 전투원들, 석수에 범벅이 된 발마저 물속에서, 매복우에서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 격전장을 떠나지 않은 불굴의 인간들, 바로 난관앞에 두려움을 모르고 죽음을 맞받아 나가는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우리 원수님 시대의 청년들이다.

이런 청년들, 이런 인간중의 인간들이 대화원을 이루었기에 우리 혁명의 미래는 그렇듯 창창한것이다. 조국보위를 신성한 영애로 여기고 영애공인과 한생을 같이하는 데서 궁지를 찾는 청년들, 당과 수령의 부름에 심장의 끓는 피로 화답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있는 땅의 전위원, 이런 청년들이 감히 부패타락하고 변질되기를 기다리는 원수들은 얼마나 가소롭고 이리석은가.

천군이 울리는 승리의 포성으로 적들을 전멸케 하라.

백두산기슭에서 언제나 또 한번 솟구쳐다오는 소식은 청년들이 또 한번 역세였다다는 소식이며 건설장에서 타임속도가 또 몇배로 올랐다는것은 우리 당만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신념이 또 몇배로 강해졌다는것이다. 백두산에 울려 퍼지는 혁혁한 노래소리는 원수들의 온갖 망상을 산산이 깨버리는 북수의 첩보이고 도도한 진격의 포성은 원수들의 머리우에 쏟아지는 멸적의 불바라이다.

천고의 밀림을 다스리고 조국의 북편을 더 넓게 비치게 될 청년연애는 이것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백두산기슭의 수백만명 발전소건설이 안아오는 진화진지개혁은 조선의 새시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떠메고나갈 백두산의 청춘들이 혁명의 핵심력량으로 자라나는것이다. 악랄한 원수들의 발악을 짓부셔 세기를 향해 솟구치는 조국이 이 노래보다 끝없는 혁명전열들을 요구하고있는 때에 백두의 혈통을 계승한 백두산의 청춘들이 혁명의 강자들이 강철의 숲을 이룬것은 억만금의 재부를 얻고 수천수천 개의 수 거리를 일떠세우것에 비할수 없는 거대한 승리이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의 붉은 기발이 군기마냥 펄럭 날뚫는다.

백두청춘이여, 조국은 그대들의 기개한 발걸음에서 힘을 얻으며 또 한번는 무신 비록의 나래를 펴고있다.

더 용감하라! 더 대담하라! 더 질풍같이 풍격하라!

백두청춘의 용맹을 다시 한번 더 높이 떨치자!

우리 당의 70년 력사가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성스러운 력사임을 증명할 가장 책임적인 임무가 그대앞에 있다.

《백두산》과 《선군》을 독재대립에 새겨 주시어 천추만대에 배에 새긴 혁명정신을 물려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전수 받들고, 한시도 잊지 말자! 청년강국이라는 위대한 시대에 그대들을 하늘같이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의 믿음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여이 보답하라!

동무는 청년강국의 청년답게 살고있는가. 이 물음앞에 언제나 멋있게 살수 있게 강강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백두산 칼바람을 안은 청년동맹기발을 더 세지게 휘날려라!

누구나 백두의 넋을 배에 새긴 위대한 강국을 펼쳐서, 우리 당이 손들어 가리키던 천만산악도 단번에 덮이게는 김정은시대의 청년영웅이 되라!

바치고 바쳐도 진함이 없을 무한한 열정과 용맹의 시대, 아무리 아득한 꿈도 단숨에 이룰수 있고 누구나 세계를 앞서 활개 치며 나아가 할 눈부신 문명과 의욕의 시대 그대들앞에 펼쳐졌다.

꿈없이 창조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전성기를 조선청년의 고귀한 피와 맘으로 반드시 안아올리자!

이제 머지않아 우리 당 청년중심의 기둥 람이 높이 쌓아지고 꿈결에도 그림던 원수님을 모신 청춘들의 대항창노래소리가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축포성마냥 장쾌하게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한 총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가 2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리팔청 강원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꾼들, 원산제염소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원산제염소 초급당비서 방문철키 기념보고회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94(2005)년 7월 21일 원산제염소를 찾으신가 경원도인민들이 자체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기업소의 발전에서 일대 이익을 가져오는 것 고부적기초로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제염소가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염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소금발명적을 확충하고 부두와 뽕포장, 저유지, 랑크 등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공적법에 따르는 수많은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 생산을 늘

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놓았다고 말하였다.

수십만㎡의 결정지터일기를 힘있게 내밀었으며 염금법에 의한 잔물만들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용량도와 밀차식 소금운반시설을 자체의 힘으로 설치하여 정보당 소금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인대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운정어린 트랙토르를 비롯한 문천기재와 설비들을 포함으로써 공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인민적시책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백송종합시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인민적시책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종업원들속에 세상에 들도 없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 시키고있다.

일꾼들과 선동원들이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소개한 도서와 당보 등 출판물을 가지고 현장

에 나가 독보와 해설모임을 실시하고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꾼은 작업의 일환에 종업원들의 무릎을 마주하고 구제적인 사실 자료들을 싣며 들어가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의 우월성을 실감 있게 해설해주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

에 나가 독보와 해설모임을 실시하고있다.

정령 있을수 없는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언설을 들으며 삼명면인민들은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여말로 진정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를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을 온근으로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은과군 강안협동농장에서-

공민의 의무를 다하자고 하시며

이런 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광범한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대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인민들은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시며 자기들 나와의

정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으로는 서시움을 적시었다.

그러나 강적으로 설계되는 삼명면인민들을 정경계 비리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두가 이번 선거의 력사적의의와 진정한 민주주의적성격을 옹호케 인식하고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후보자들에게 찬성투

표함으로써 공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정령 있을수 없는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언설을 들으며 삼명면인민들은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여말로 진정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를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을 온근으로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석탄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자

정신력을 분출시켜 안아온 성과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들 새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디.》

덕진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성탄광에서의 지난 6월전투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월초부터 탄광의 생산실적은 대폭 낮아졌다.

예상치 않았던 불리한 생산조건때문이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보아야 할 불리한 조건이 지속되었다.

이런 경우 종전같은 연합기업소나 탄광에서 긴급회의를 소집되고 탄광일군들, 초급일군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곤 하였다.

그러나 연합기업소와 탄광에서는 일군들이 현장을 떠나 진행하는 도임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광에서는 9일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6월 화력발전소 석탄보급회수행의 자랑찬 승전고조가 이루어졌다.

하루이틀 사이에 생산조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불리한 조건은 일말까지 지속되었다.

하다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선 연합기업소에서 조성된 정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어떤

덕성탄광의 6월전투과정을 두고

조직사업을 하였는가부터 보기로 하자.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에서는 기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생산지휘부를 파견하였다.

탄광에 내려간 일군들은 사업 중심을 탄부대중의 정신력분출에 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심장애 새기고 당일일군진행정경계일군진행 초급일군진행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사상전진적중심세부터 들어대는것으로 자기 사업을 개시하였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막장에 들어간 일군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우리가 화력발전소석탄보급을 제대로 못하면 수도 평양의 밝은 불빛을 지킬수 없게 된다. 석탄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

투쟁열, 혁명열로 달아오른 일군들의 목소리는 탄부들의 심장을 세게 울려주었다.

화장에 불이 달린처럼 삼시에 모든 광각장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왔다.

탄부를 움직이수 없었던 일군들이 남뉘처럼 탄차에 어깨를

들여밀었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밤이 닳도록 걸고 또 걸으며 이동참모회의를 기동적으로 열고 막과루를 열어나갔다.

탄광일군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연합기업소일군들과 협동작전을 벌리며 탄부들과 어깨를 견고히 한 생산전투를 벌려왔다.

살아도 죽어도 화력발전소 석탄보급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와 사상관념을 가지고 일군들이 막장에 들어간 첫날에 벌써 하루석탄생산계획이 돌파되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일군들과 탄부들의 고귀한 땀으로 마련된 투쟁성과를 계속 확대시키기 위하여 연합기업소에서 각 광각장, 광단위별, 재탄중대별, 광진출대별사회의의 정황을 조직하였다.

탄광에서는 경쟁기간을 5일 간으로 정하고 총화경사사업이 끝나는 즉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에 진입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1단계 목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기념일을 앞두고 미진된 일제계획을 강행들과 하며 2단계에서는 남은 기간에

탄광앞에 나선 화력발전소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여기에 지향시켰다.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대중들의 계기를 잘 설정한것이 탄광에서 기적과도 같은 성과가 이루어진 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

5일로 정한 사회주의경쟁에서 총화경사사업 역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경쟁에서 우수한 단위에는 석탄생산에 걸실히 필요한 설비들, 막장소공구들이 수여되었고 개별탄부들에게 한한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경쟁기간이 비록 짧다 해도 상당한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결과 탄부들의 증산열의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고 활활산처럼 터져오르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일제계획이 줄어든 생산량이 급격히 오르게 되었다.

지배인 김명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세워 메고 화산의 기만처럼 역세에 내달릴 때 탄부들, 가두내명원들은 한탄차분의 석탄이라도 더 보

내주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기념일에 너무도 많은 석탄이 쏟아져나와 연합기업소 책임일군들조차 믿기 어려웠던 몇몇이 그 탄광의 광들과 저탄장을 돌아보았다는 이야기, 5명 1중대와 2중대 탄부들의 안해들이 가족세대를 뚫고 불철주야로 뛰고 도뛰어 남편들의 증산투쟁을 고무해준 이야기 등 무수히 많은 일화들과 미담들이 지하학당들에 퍼져나갔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상상도 할수 없고 흉내도 낼수 없는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위력은 탄광에서는 6월 화력발전소 석탄보급회수행 성과를 더욱 수행할수 있었다.

탄광에서 이루어진 자랑찬 성과는 말해준다.

점명하여야 할 생산고지가 높을수록, 가로막은 난관이 어렵고 힘에 부칠수록 대중에게 거리고 사상전의 불길들 새차게 지펴올리라.

일군들이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대담하게 버리고 현실에서 적구들이 거둬먹고 앉아서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연합기업소와 탄광일군들이 6월전투과정에서 보여준 사업정황이다.

본사기자 강병철

이것까지 각지 탄광들의 광각장들이 물에 잠긴 한 폭우는 없었다.

하지만 밤침할수 없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는 큰물에 의한 피해로 석탄생산에서 사소한 지장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장마철이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지난 시기를 놓고볼 때 산발적으로 혹은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 경우 가장 확실한 피해를 받은 부문이 바로 석탄공업부문이다.

2012년 평안남도의 여러 지구를 휩쓸었던 큰물피해가 대표적실례로 된다.

하루밤사이 물에 잠기고 석탄운반로선이 통째로 물에 떠내려가는 사태가 조성되었다.

그대의 교훈에 비추어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올해 정초부터 취해졌다.

그러나 올해 장마철에 강한 폭우와 함께 큰물이 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여 각지 탄광들에서는 보다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제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마철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연합기업소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그 어떤 폭우에도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력공업성을 비롯한 변전단위와의 협동작전을 잘하여 폭우로 전력, 통신시설이 파괴되는 경우 비상대책을 취할수 있도록 예견성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각지 탄광들에서 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장마철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주요개소들에 전개된 댐들을 잘 정비하고 그 능력을 잘 타산하여 설비들을 집중재정비로써 광각장들에 물이 차오르는폭우를 방어하여야 한다.

각지 탄광 일군들은 배수로, 지수음, 물도랑, 벨트콘베어수송선, 전차운반로선, 저탄장에서 큰물피해로 석탄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재점검하고 빈구석을 모조리 찾아내어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탄광에서 주변의 강하천정리를 잘하여 단한동의 공공건물이나 탄부살림집도 큰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마철에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려면 골짜기를 잘고 앞세워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갖추어야 한다.

석탄공업부문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폭우에 의한 피해막이의 성과여부는 결정적으로 당조직들이 당적지도로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달려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탄부들은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는것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유호관철전,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에상치 않았던 조건으로 강들에서 전차를 움직일수 없었다.

이때 막장을 타고있는 일군들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이렇듯 불리한 조건에서 더 높이 발휘되어야 하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탄부들, 증산열을 앞세우고 강에서 배낭을 메고 앞장서 내달렸고 그뒤를 탄부들이 따라왔다.

강안에는 황일 혁명정신들이 부르던 혁명가요가 울렸다.

채탄광장에서 운반로선으로, 운반로선에서 광각으로 일군들과 탄부들이 울리는 진격의 함성이 높이 울려 퍼졌다.

이렇듯 당이 제시한 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념의 목소리, 혁명의 노예로서의 높이 울리는 가슴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리는 법이다.

중앙강의 탄부들이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겨주어 수행하였고 그뒤를 따라 로적경, 청년경, 충비경, 방동경, 승리경에서 석탄생산의 포성을 높이 울림으로써 탄광연합기업소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이 수행되게 되었다.

오늘도 혁명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결정지시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일없을수 없다는 투철한 관념과 필방을 가지고 7월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포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조선로동당중앙 일흔셋째 전국대회 일흔셋째 회의는 뜻깊은 울려퍼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탄광의 석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배이상 성장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이탄 일군들이 석탄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걸린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탄광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결한 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올해전투에 들어서면서 탄광 책임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로 하여 막장마다에서 굴진속도가 빨라지고 채탄실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석탄운반에서는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있었다.

전차와 탄차가동대수를 늘려야 하였으나 이것은 더 많은 전력소비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수리장비에 필요한 자재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여러번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은 증산예비 인포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군들이 모여 토론도 해보았지만 다른 단위처럼 전차선을 정비보강하고 전차길의 배후이음목을 없애자는 의견에는 더 다른안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전차선을 정비보강하고 전차길의 배후이음목을 없애면 일정하게 운반능력이 올라갈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연 다른 방안은 없던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지심같이 뻗어 나간 전차길을 따라 1중과 5중의 생산정황을 료해하기 위하여 막장으로 들어가면 탄광책임일군의 머리속에 지난해말에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바로 그가 걸고있는 곳에서 달리던 전차 한대가 고장나면서 1중과 5중의 전차 여섯대가 멎어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1중과 5중의 운반중대들을 운반강에 배치시키고 전차와

탄차의 수리정비를 진행하면 고장회수가 줄어들고 운반능력도 올라가지 않았는가.

탄광책임일군들은 즉시 해당 일군들과 마주앉아 의견을 나누고 실무적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성과는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능공들이 집중되니 전차와 탄차수리정비시간이 단축되고 그 길도 높아져 가동시간이 훨씬 늘어났으며 동일한 지휘로 하여 전차운행과 관리를 보다 짜고들어 진행할수 있었다.

탄광일군들은 당면한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전차선의 정비보강뿐만아니라 전차길도 정비보강하면서 배후이음목을 없애기 위한 전투를 진행하도록 하여 전차운행시간을 일신시켜나갔다.

한편 탄광적인 파월수집사업을 벌려 제기되는 많은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주에 1차례 진행하는 설비점검의 날 운영도 운반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하여 전차운행과 관리를 보다 짜고들어 진행할수 있었다.

상반기 동안 탄광앞에는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가 내리고있었다.

화력발전소 한 단위에만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던 지난해 9월에 비해 월평균 수천톤의 석탄을 더 보내주어야 하였다.

이것은 생산조건이 좋은 어느 한 강에 령명을 집중하여 손쉽게 돌파할수 있는 증산목표가 아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떨쳐나섰다.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증대장, 광장들도 참가시켜 한개 대상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후 총화과 평가를 실시있게 진행하여 설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도 하였다.

결과 운반능력은 1.5배로 높아지고 석탄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운반능력을 끌어올려 석탄생산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는 탄광의 현실은 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이 단 위에서 높은 생산성과가 기록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루 및 사천 본사기자 정경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선진기술로 하라.》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혁명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높이 내세운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겨주어 수행한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비결은 단대 데 있지 않다.

일군들과 탄부들이 탄광에 갔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배워인 한마음을 안고 당이 제시한 증산목표를 그날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글아글 노력하고있는데 있다.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9월말에 비해 월평균 수천톤의 석탄을 더 보내주어야 하였다.

이것은 생산조건이 좋은 어느 한 강에 령명을 집중하여 손쉽게 돌파할수 있는 증산목표가 아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떨쳐나섰다.

가능성을 론하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탄광의 특성에 맞게 일군단위별로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정관리를 잘 짜고들었다.

특히 작업골전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문제로 제기된것은 석탄운반이었다.

광단위에서 석탄을 광장 생산한다고 해도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려면 탄차가 결정적으로 모자랐다.

탄광의 특성에 맞게 일군단위별로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정관리를 잘 짜고들었다.

특히 작업골전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문제로 제기된것은 석탄운반이었다.

광단위에서 석탄을 광장 생산한다고 해도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보내주려면 탄차가 결정적으로 모자랐다.

에상치 않았던 조건으로 강들에서 전차를 움직일수 없었다.

이때 막장을 타고있는 일군들은 이렇게 호소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이렇듯 불리한 조건에서 더 높이 발휘되어야 하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탄부들, 증산열을 앞세우고 강에서 배낭을 메고 앞장서 내달렸고 그뒤를 탄부들이 따라왔다.

강안에는 황일 혁명정신들이 부르던 혁명가요가 울렸다.

채탄광장에서 운반로선으로, 운반로선에서 광각으로 일군들과 탄부들이 울리는 진격의 함성이 높이 울려 퍼졌다.

이렇듯 당이 제시한 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념의 목소리, 혁명의 노예로서의 높이 울리는 가슴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리는 법이다.

중앙강의 탄부들이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겨주어 수행하였고 그뒤를 따라 로적경, 청년경, 충비경, 방동경, 승리경에서 석탄생산의 포성을 높이 울림으로써 탄광연합기업소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이 수행되게 되었다.

오늘도 혁명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의 결정지시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일없을수 없다는 투철한 관념과 필방을 가지고 7월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막장에 내려치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 혁명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

강령군 사연수산협동조합에서

강령군 사연수산협동조합의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 5월말까지 삼반년도 수산물생산계획을 수행한 이들은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고기배들을 현대화, 만능화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어로기술을 많이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은 조합일군들은 분발하여나섰다.

당에서는 황금해의 세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중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고있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올해 기적이 조합앞에 펼쳐진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지난 시기 수산물생산이 잘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원인은 명백하였다. 당의 수산정책대로 모든 일을 전개하지 못한 데 있었다. 당에서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 만능화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이니 그것은 그대로 물고기잡이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물고기잡이에서 저돌성과의 비결

했던것이다.

지난 시기의 사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조합일군들은 앞선 물고기잡이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 일군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올해 물고기잡이준비기간 일군들은 안장양산계획에 현대적인 통선기계를 갖추고 어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확립시켰고 고기배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기술적, 기능공들과 상호협력과 협정을 합쳤다.

또한 조합에서는 고기배들에 보조기관을 설치하여 적은 연유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기술혁신안도 창안 도입하였다. 항해할 때와 달리 어로작업중에는 마력수가 낮은 보조기관을 돌리니 내연의 실리성이었다. 초보적인 라인에 의하더라도 연유는 종전에 비할바없이 절약되었다.

뿐만아니라 조합에서는 물고기저장에 필요한 소금저장장고, 갯갈저장장고와 수산물냉장고를 번듯하게 일떠세워 작은 물고기를 모조리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놓았다.

이처럼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고기배와 어구준비를 비롯없이 갖춘 다음 어장에 진출하여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이니 그것은 그대로 물고기잡이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유훈관철의 힘있는 무기 - 자력갱생

광포오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초급당비서가 어떤 목표를 내놓았을 때 필수 초급일군들이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직 무동력증기보일러를 설치해본 경험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전기사정, 기술자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일군들끼리 난관극복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부족하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력사의 준엄한 시험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받아들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디.》

배두일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단적인 난관을 맞아와왔고나가자.

일군들이 찾은 방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난 걸실했습니다. 자체로 무동력증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난관앞에 주저할것이 아니라 뚫고나갈 각오부터 가져야 한다. 우리 일군들 모두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제나감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

초급당비서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는 당정책이요 체제였다. 당, 근로단체일군들이 앞장서주어야만, 생산한것 보충보강의 일군들이 비유직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분담이 이루어졌다.

초급당비서가 어떤 목표를 내놓았을 때 필수 초급일군들이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직 무동력증기보일러를 설치해본 경험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전기사정, 기술자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일군들끼리 난관극복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부족하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력사의 준엄한 시험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받아들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디.》

배두일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단적인 난관을 맞아와왔고나가자.

일군들이 찾은 방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난 걸실했습니다. 자체로 무동력증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난관앞에 주저할것이 아니라 뚫고나갈 각오부터 가져야 한다. 우리 일군들 모두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제나감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

초급당비서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는 당정책이요 체제였다. 당, 근로단체일군들이 앞장서주어야만, 생산한것 보충보강의 일군들이 비유직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분담이 이루어졌다.

초급당비서가 어떤 목표를 내놓았을 때 필수 초급일군들이 주저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직 무동력증기보일러를 설치해본 경험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전기사정, 기술자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일군들끼리 난관극복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 부족하네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력사의 준엄한 시험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받아들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디.》

배두일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단적인 난관을 맞아와왔고나가자.

일군들이 찾은 방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난 걸실했습니다. 자체로 무동력증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난관앞에 주저할것이 아니라 뚫고나갈 각오부터 가져야 한다. 우리 일군들 모두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제나감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

초급당비서의 절절한 호소는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는 당정책이요 체제였다. 당, 근로단체일군들이 앞장서주어야만, 생산한것 보충보강의 일군들이 비유직장을 담당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분담이 이루어졌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초급당일군들이 메달이 공장에 나와 초급당위원회 사업정황을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유호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벌려도록 떠밀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초급당일군들은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에 필요한 용접봉, 증기관, 벽돌 등 각종 자재들을 당,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보장해주었으며 당과 같이 따르며 일제나감 때와 함께 일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주저라방향인 앞장서주어 작업반의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현장을 찾아가는 초급당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웠다. 일정계획을 직관물로 표지하여 만들어놓고 광명정철까지 남는 날자를 밝히며 전투속도를 기동성있게 발간하도록 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속에 공사는 대소현의 추위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공사가 진척될수록 초급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적발동에 더 큰 힘을 넣었다.

보일러설치를 끝내고 보일러제작과 증기관들이기파제가 나섰을 때였다.

긴장한 전기사정이 제일 큰 난관이었다.

초급당일군들은 발전발전기를 돌려 용접을 하도록 하는 한

전 전투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명명히 했다.

그무렵에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로작 《세지머지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가지고 전투원들속에 들어간 초급당비서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이 이미 꾸러놓은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맨손으로 연길관목을 만들어 해 높음을 처부신 항일혁명정신들의 그정신, 그기백으로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를 하루빨리 내내고 앞장서고 고기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장군님의 전사, 제자된 도리를 지키자. ...

손에 함마와 질단장치를 들고 일제나감 때를 견뎌내는 초급당일군들의 뒤를 작업반원들도 두가 따라섰다.

앞장서고 가는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는 계획보다 거의 한 주일이나 앞장져 끝났으며 압시힘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재의 힘으로 설치한 보일러가 일제나감 때를 견뎌내는 8대의 앞장서고 가는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를 위한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현장에 토대

하여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생산준비를 위한 총동원전에 불려들이었다. 총동원전에 불려들이자마자 초급당비서가 일제나감 때를 견뎌내는 초급당일군을 여러차례 현장에 나가 대책을 세움으로써 석탄보급장치를 열어놓았다. 태양전까지 청년정철, 다호정철, 호남정철의 새끼오리사 3동에 무동력증기보일러설치를 완전히 끝냈고 모든 직장장에 물과 조명보장을 위한 발동발전기, 양수기, 태양발전기, 축전지가 입식으로 갖추어졌다.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도록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들이니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성과는 크다. 올해 공장앞에 걸려진 오리고기생산계획수행의 돌파구가 확고히 열렸다. 보다 큰 성과는 종업원들을 실전투쟁의 용광로속에 자력갱생의 투사들로 키운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올해 공장은 큰 결실을 내었다.

자력갱생의 길에 찬다운 애국충정이 있고 모든 승리의 근본 담보가 있다.

자력갱생을 힘있는 무기로 틀어쥐고 대중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호관철을 위한 투쟁에 불려들이고 성과를 이룩한 공장초급당위원회 사업은 이 전리로 다 시금 확충해준다.

본사기자 김향란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열의로 약동하는 최신식남새연구 및 생산기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인민위반 그 사랑 길이 전해가는 희한한 온실바다

정보당 300t을 생산한 비결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구배길을 걷고 있다.

총부지면적이 143만 5000여㎡ 되는 드넓은 연구소의 곳곳에 희한하게 펼쳐진 현대적인 수경온실들과 박막온실들이 마치 인민이 누릴 더 큰 행복을 소리쳐 부르는것만 같아 가슴설레임이 글썽글썽하다. 첨단생물공학연구설비들을 그뿐히 갖춘 여기 최신식남새연구 및 생산기지에서는 도마도와 고추, 오이를 비롯한 각종 남새들이 풍성하게 자라 남새수출을 위한 자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있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과 락을 찾으신 우리의 원수님께서 이곳 연구소의 온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온실바다를 보는것만 같다고, 규모가 대단히 크뿐만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찬 한 기지라고 격정에 넘쳐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울려오듯싶어 눈곱이 뜨겁게 말아오른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새 풍광앞에서 한련의 서사시와도 같은 절세원수의 훌륭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다시금 심장깊이 되새기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어 마련해주신 귀중한 밀천들이 은을 내기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

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념원이였으며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정장 격정있는 부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한 행복의 씨앗을 물으시며 그토록 품을 들이신 연구소가 아니던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남새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시려는 숭고한 구상도 깃들여 있었다. 그 뜻에 받들려 평양 남새과학연구소는 물과 비료주기, 온습도 등 모든 작업공정들을 컴퓨터로 조종하는 최신식남새연구소로 훌륭히 개건되게 되었다.

연구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던 날날 건설자재와 설비의 보장은 물론부터 시작하여 온실의 온도보장과 물보장문제, 시험포전과 종자문제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도 남새과학연구소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연구사들의 포로로 높이 평가해주신 아버지장군님, 인민들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이곳을 찾

시어 온실바다에서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 먹음직스러운 남새들을 바라보시며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인민의 가슴속에 오늘날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현지도도의 그날 앞으로 수경온실도 한동 짓고 박막온실도 더 건설하여 남새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인민들에게 남새를 공급해줄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절절한 념원을 풀어드리시기 위해 길이 마음쓰신 우리 원수님입니다.

너무도 뜻깊은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의 대가를 흐르던 그날 장군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던 이곳 연구소의 능력확장공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면서 제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이런 뜨거운 손길이 있어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대규모남새연구생산기지로 전변되게 되었다.

주제 101(2012)년 9월 1년 남짓한 기간에 능력확장장인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양액공급과 컴퓨터조종, 생물공학설비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칭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담하게 도전한 연구생산기지에서는 더욱 문명하고 윤택해진 인민의 새 생활창조를 위해 불도가나마냥 새차게 뚫고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불꽃의 정신력을 안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이곳 연구소의 일꾼인 최영남동무는 우리에게 굳이 애써서 이야기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가슴속에 팡팡 새겨놓은 그날같이 황홀한 온실바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게 할것으로 감히 어찌보고도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던 전리이며 생명인 우리의 사치주의는 영연하며 당의 온정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나가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담하게 도전한 연구생산기지에서는 더욱 문명하고 윤택해진 인민의 새 생활창조를 위해 불도가나마냥 새차게 뚫고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불꽃의 정신력을 안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이곳 연구소의 일꾼인 최영남동무는 우리에게 굳이 애써서 이야기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가슴속에 팡팡 새겨놓은 그날같이 황홀한 온실바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게 할것으로 감히 어찌보고도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던 전리이며 생명인 우리의 사치주의는 영연하며 당의 온정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나가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담하게 도전한 연구생산기지에서는 더욱 문명하고 윤택해진 인민의 새 생활창조를 위해 불도가나마냥 새차게 뚫고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불꽃의 정신력을 안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이곳 연구소의 일꾼인 최영남동무는 우리에게 굳이 애써서 이야기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가슴속에 팡팡 새겨놓은 그날같이 황홀한 온실바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게 할것으로 감히 어찌보고도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던 전리이며 생명인 우리의 사치주의는 영연하며 당의 온정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나가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담하게 도전한 연구생산기지에서는 더욱 문명하고 윤택해진 인민의 새 생활창조를 위해 불도가나마냥 새차게 뚫고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불꽃의 정신력을 안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이곳 연구소의 일꾼인 최영남동무는 우리에게 굳이 애써서 이야기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가슴속에 팡팡 새겨놓은 그날같이 황홀한 온실바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게 할것으로 감히 어찌보고도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던 전리이며 생명인 우리의 사치주의는 영연하며 당의 온정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나가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담하게 도전한 연구생산기지에서는 더욱 문명하고 윤택해진 인민의 새 생활창조를 위해 불도가나마냥 새차게 뚫고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불꽃의 정신력을 안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이곳 연구소의 일꾼인 최영남동무는 우리에게 굳이 애써서 이야기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가슴속에 팡팡 새겨놓은 그날같이 황홀한 온실바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게 할것으로 감히 어찌보고도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던 전리이며 생명인 우리의 사치주의는 영연하며 당의 온정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나가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위인의 그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대담하게 도전한 연구생산기지에서는 더욱 문명하고 윤택해진 인민의 새 생활창조를 위해 불도가나마냥 새차게 뚫고 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가 불꽃의 정신력을 안고 한사랄같이 떨쳐나서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다고 이곳 연구소의 일꾼인 최영남동무는 우리에게 굳이 애써서 이야기한다.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가슴속에 팡팡 새겨놓은 그날같이 황홀한 온실바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하게 할것으로 감히 어찌보고도 미친듯이 발광하고있던 전리이며 생명인 우리의 사치주의는 영연하며 당의 온정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나가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시며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

수확의 날에 넘치는 기쁨

온실바다에 기쁨의 파도가 출렁인다. 수도시원들에게 보내 줄 도마도를 삼지마대에 가득 가득 담으며 재배공들이 환하게 웃는다.

잘 익은 열매들을 고르고골라 수도시원들에게 가득히 실어보내는 재배공들의 얼굴마다에 로동의 보람, 생의 행복이 한껏 실렸기. 얼마나 정성다해 가꾼 열매이던가. 수경온실에서 정보당 300t을 생산한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자녀께나 심장깊이 새겨안고 바쳐온 땀과 열정 그 열매이던가.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나라의 남새생산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그날의 유훈은 결코 일꾼들과 과학자들의 가슴속에만 새겨지지 않았다.

자신들도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과학자들과 한

진호에 섰다는 드높은 자각과 열의를 갖고 앞선 과학기술을 남치지며 더 높고 더 나은 영농공정들을 표준화하는 요구대로 철저히 지키기 위해 피겨쳐 노력한 재배공들, 남모르는 그 수고를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아려주시

며 높이 치하해주실 때 재배공들 모두가 포기마다 주렁진 열매를 어루무늬 눈물을 쏟았다.

그날의 격정의 눈물, 맹세의 눈물! 스며어 열매들은 더욱더 탐스러워진것이다.

상자마다에는 붉은 도마도가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가득히 차넘치고 재배공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 받들어 온실남새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이 이 덕을 토틀히 보게 할 충정의 맹세가 넘쳐흐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첨단과학기술의 선구자들

들의 건강까지 넘쳐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높은 연구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연구사 마일현동무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물리화학의 석사로 졸업하고

고 박사학위를 거친 전도가 양양한 20대의 청년과학자이다.

그는 컴퓨터화상분석에 의한 조기영양단기기술을 수경온실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오이를 정보당 300t 생

산하기 위한 재배기술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높은 실력과 실전능력을 지닌 그는 온실바다에 도마도, 고추, 오이를 비롯한 풍성한 남새작물을 마련할 결심을 품고 최첨단의 봉우리를 향하여 줄달음치고있다.

기술원 김옥인동무는 작물들에 대한 재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기 위한 책임성과 요구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르는 재배관리를 기술적으로 맞게 진행하여 남새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담보해나가는 그의 모습은 불수룩 미덥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꾸려주시는 온실, 곳곳마다에 장군님의

재위가 뜨겁게 어그러지는 온실에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연구사 김철진동무는 영양가가 높은 남새종자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실적을 뽐냈을뿐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다정다감한것으로 하여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종자를 유해안으로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그는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여러가지 남새우량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종자를 유해안으로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그는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여러가지 남새우량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종자를 유해안으로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그는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여러가지 남새우량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남새종자를 유해안으로 국가품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그는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여러가지 남새우량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20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올리고 축하사를 드려 말했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사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키리바티국전선박 《뉴 글로벌》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아 조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는 1950년대에 3년간의 피어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하고 이어서 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하신 전설적영웅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미제는 당시 동원할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조선전선에 끌어들이고 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야만적이고 악랄한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면서 발발하였지만 참패의 치욕만을 당하였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반공파괴적전쟁행동에 매여달리고 《인원》소동으로 조선을 위협, 압박하고있지만 그것

은 한갓 부질없는짓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전쟁하는 김정은동지의 병도가 있으며 백승만을 떨치는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전승의 력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부강민생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집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그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세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영광의 집어삼키고 집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재적임 군사상과 전범, 전락적임이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무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그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세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영광의 집어삼키고 집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재적임 군사상과 전범, 전락적임이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무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그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세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영광의 집어삼키고 집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재적임 군사상과 전범, 전락적임이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무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그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세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영광의 집어삼키고 집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재적임 군사상과 전범, 전락적임이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무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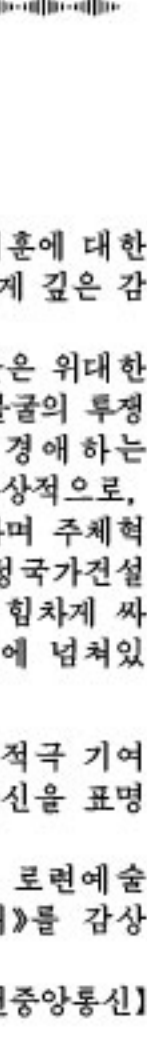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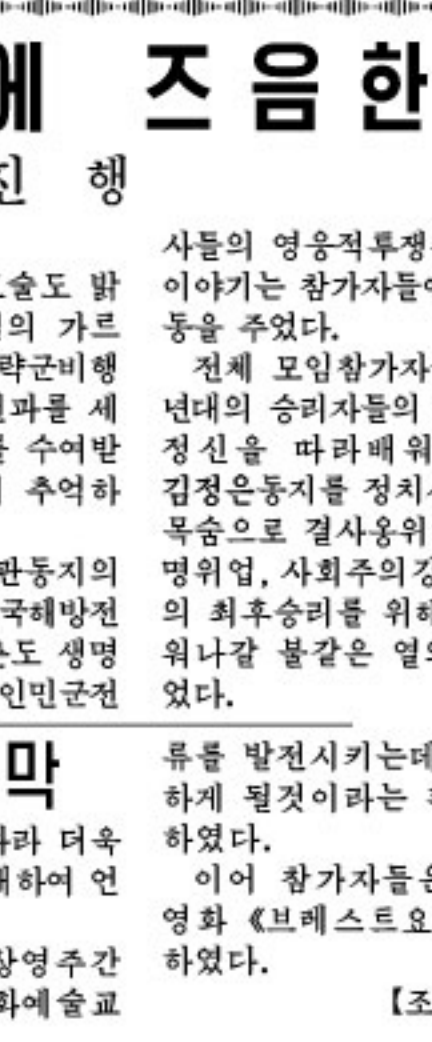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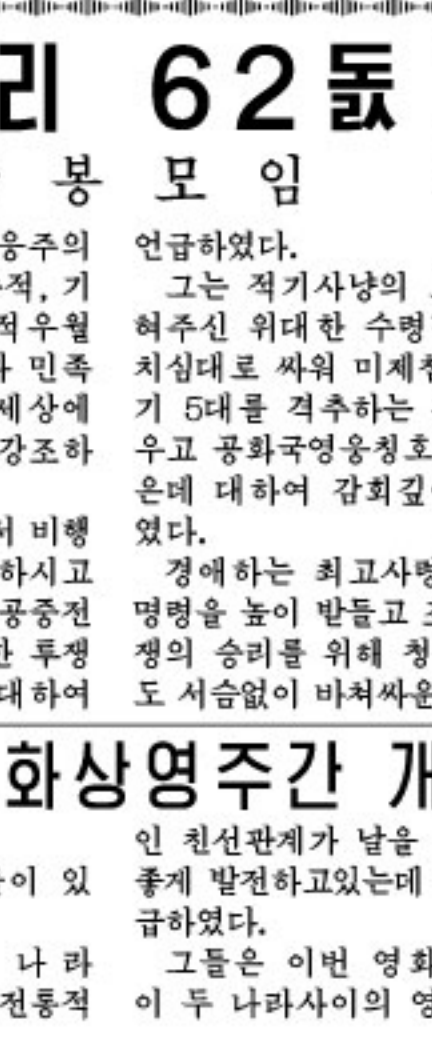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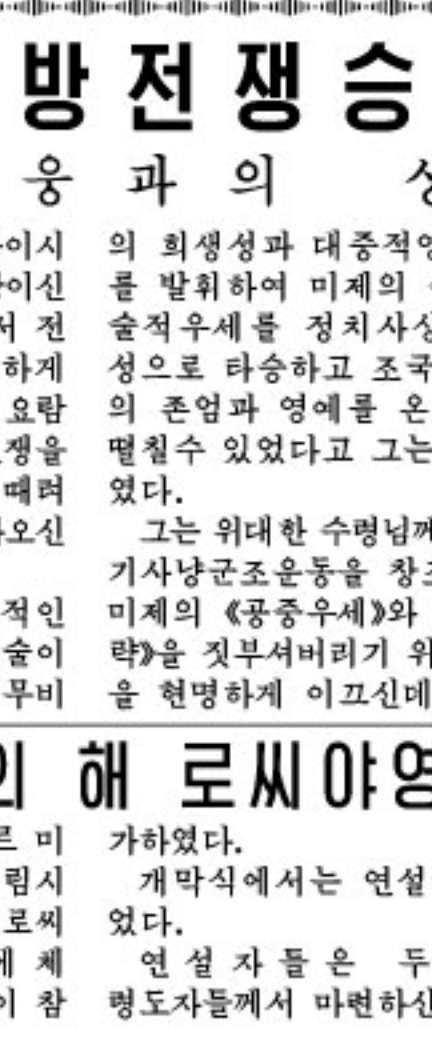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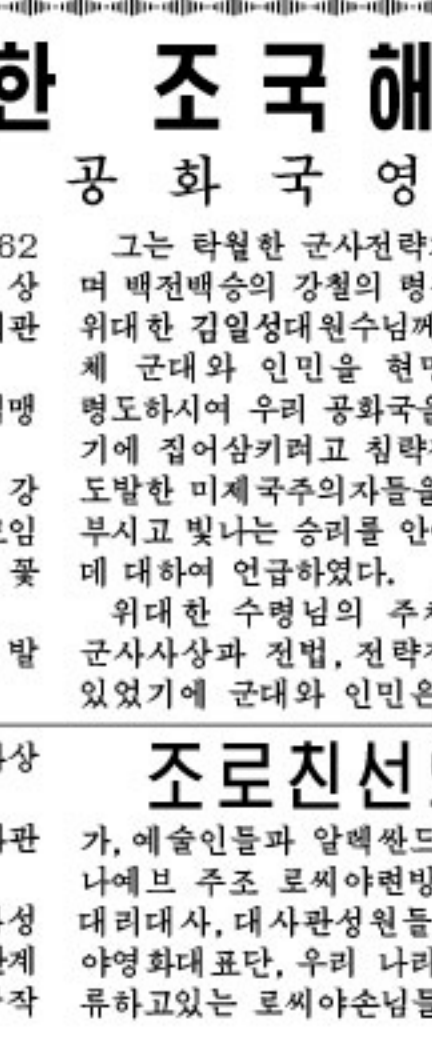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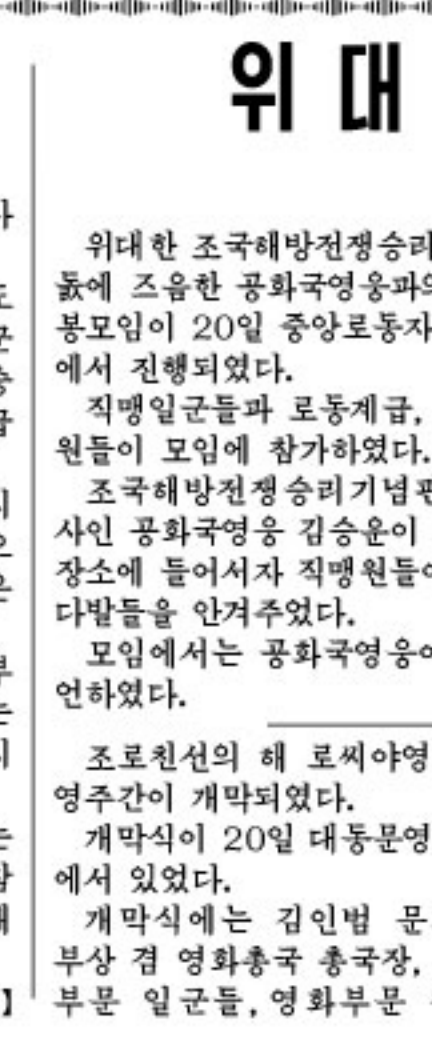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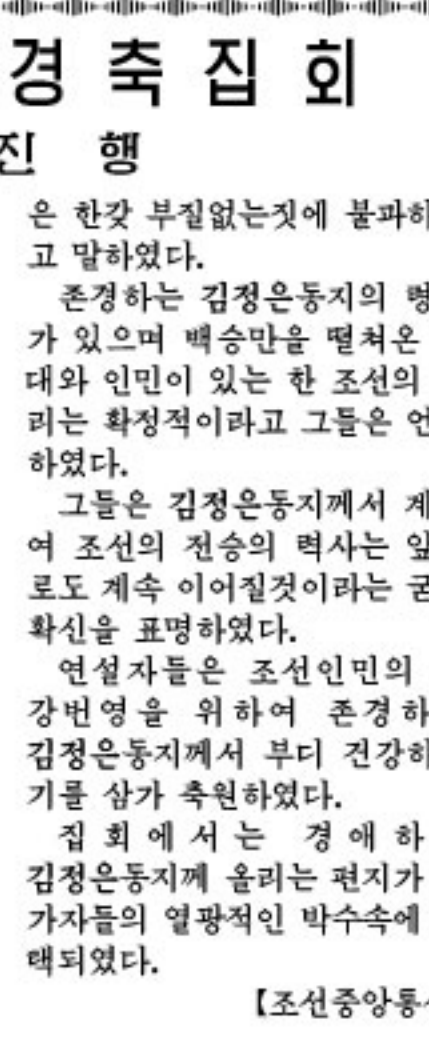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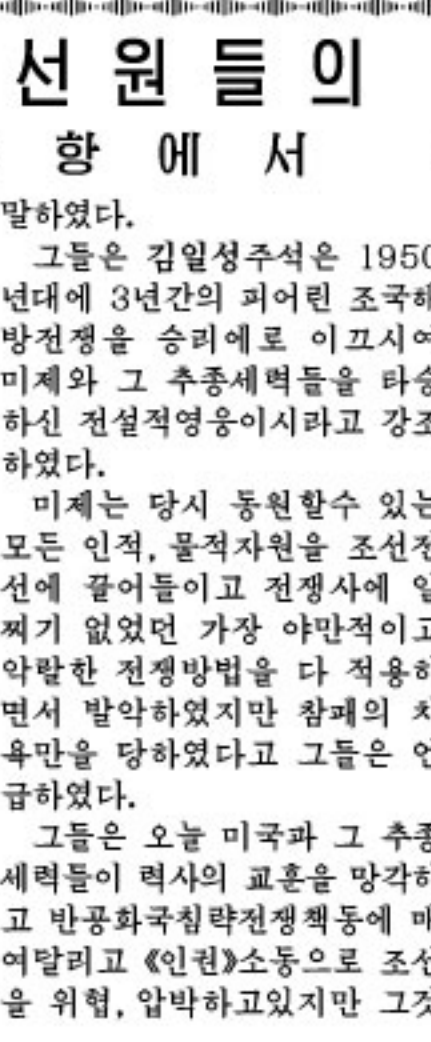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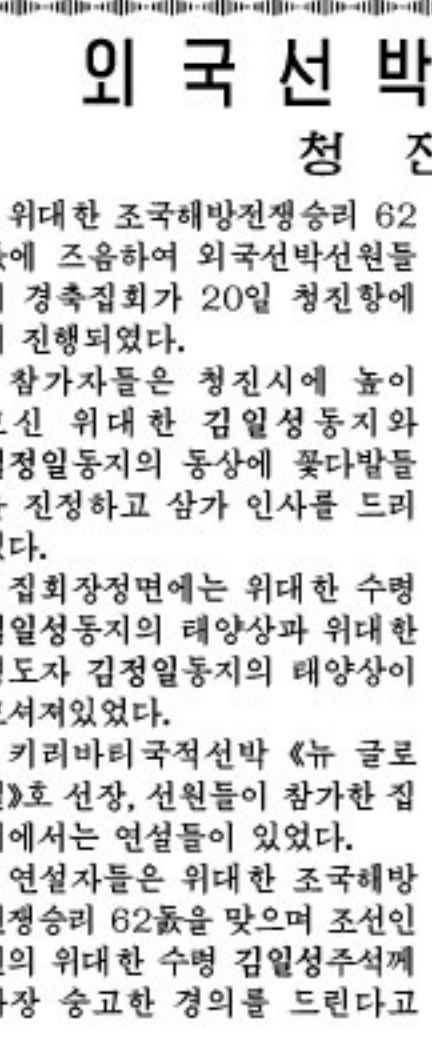
그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세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영광의 집어삼키고 집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재적임 군사상과 전범, 전락적임이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무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 진행

그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세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영광의 집어삼키고 집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재적임 군사상과 전범, 전락적임이 있었기에 군대와 인민은 무비



모락군들에게 차례질것은 국제적망신뿐이다

모락과 남조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진실앞에서는 한눈의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법이며 그 추악한 면모는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어느 한 일방잡지는 우리 화학무기전문가가 유럽에 망명하였다고 떠들어대는 피피들의 모락보도에 대한 반박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조는 《연합뉴스》는 6월 6일 다행의 소식통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화학무기전문가가 화학무기국제실험자료를 가지고 필리핀을 거쳐 핀란드로 망명하였다고 7월말 유럽의 회에서 그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충격적인 보도》는 서방세계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확인된대 의하면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남조국이었다.

핀란드출판보도물들은 자국정부가 조선화학무기전문가의 망명설에 대하여 전면부정하였다고 전하였다.

핀란드정부, 내무성, 이민국, 이코해법 결과 남조선피피들이 떠들어대는 망명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의 보도는 그들대로 남조선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 너무나 많은 남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의 보도는 그들대로 남조선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 너무나 많은 남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럽의 보도는 그들대로 남조선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 너무나 많은 남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것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였다고 한다. 일방잡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다행의 소식통을 리용하여 보도하는것은 남조선보도수단들의 일방적설이라고 까뻐하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혀있는 대결의 지평이들의 역겨운 추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기운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정치작업모에 지금 우리 인민들은 지우는 중요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결코 피피들 단독의 착안품이 아니며 모락과 남조의 영수인 미국과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년간 대조선전대사정책에 한창한 미로전세력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국력에 질질하여 별의별 모락선물을 다 벌이고있다.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위성발사를 《대북간담도피 일발사》라고 부작정 오해나선반도 《복소행》 사건을 《복소행》으로 몰아넣고 영화를 제작한데 《미합중국이 당한 초유의 참상》을 빚어낸 《쓰니 픽서스 해킹》사건을 《복소행》으로 몰아넣고 다음날인 미국이다.

피피들은 모락의 괴수인 미국상

전과 결탁하여 황당한 모락사건들을 계속 날조해내고있다.

미국과 피피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천안》호침몰사건을 거들며 허스레리작작기를 부린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그들이 완전공판한 우리 전락참수함의 탄도탄중시중합 발사를 《서투른 사전조작》이고 《은반선에서의 발사》라고 힐탕다 못해 그것을 《확증》하는 남조된 위성사진까지 내몰리다가 개교망신당할것도 얼마전의 일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미국이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실전도입을 위한 실험을 빼앗지 벌린 사실은 만사인의 격분을 자아내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반미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은 총체로 미국의 세균전실험장으로 내몰리는 피피들에게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치달고있다.

《대량살륙무기》를 제거한다는 구실 밑에 주권국가를 무력으로 짓밟고 미국이 비밀리에 인류멸살을 노린 세균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안락으로 공지에 몰린 미국과 피피들에게는 저들의 흉악한 세균전도발기도를 가리우고 내외의 눈길을 떠내려 돌리기 위한 그럴듯한

새로운 모락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도로 당황한 미국상선과 피피도당은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부랴부랴 반공화국모락사건을 또다시 꾸며내게 된것이다.

이것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반공화국모락선 발사를 《서투른 사전조작》이고 《은반선에서의 발사》라고 힐탕다 못해 그것을 《확증》하는 남조된 위성사진까지 내몰리다가 개교망신당할것도 얼마전의 일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미국이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실전도입을 위한 실험을 빼앗지 벌린 사실은 만사인의 격분을 자아내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반미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은 총체로 미국의 세균전실험장으로 내몰리는 피피들에게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치달고있다.

《대량살륙무기》를 제거한다는 구실 밑에 주권국가를 무력으로 짓밟고 미국이 비밀리에 인류멸살을 노린 세균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안락으로 공지에 몰린 미국과 피피들에게는 저들의 흉악한 세균전도발기도를 가리우고 내외의 눈길을 떠내려 돌리기 위한 그럴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 국 대 변 인 담 화 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조선인민의 통일별원을 지지한다

수리아외무 및 이주인성 성명 발표

수리아외무 및 이주인성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원을 지지하여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00년 6월 북남공동선언 채택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을 끝장내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남사이의 견장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무장변영하는 통일국가건설과 조선인민의 통일을 위한 대화와 실천행동에 추동하는 역사적계기였다.

선언은 김정원수각하께서 2015년 1월 15일 성명을 통하여 천명하신 사상과도 전적으로 부합한다.

수리아아랍공화국 지도부와 인민들은 김정원수각하의 영도밑에 의제의 간섭을 비롯하여 위대한 조선인민의 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온갖 난관과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2015년 6월 15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과 공화국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

수리아외무부는 조선인민의 역사적사실과정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길은 의도와 통일적인 국가에서 살며 인류문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강한 조선인민의 념원을 지지한다.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반미시위, 성명 발표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5일 영국 런던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시위가 진행되었다. 시위에는 영국신공산당, 영국군인정지원구회, 영국주재사상연구소, 영국조선선선선회와 에스파냐의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회의 인사와 대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에 앞서 연설을 하였다.

영국조선선선선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1950년 6월 25일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피피들을 무주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시위자들은 우리 나라 기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하자! 《조선은 하나다!》 《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시위를 벌였다.

또한 미국의 대조선전대사정책과 조선전쟁시기의 야수적 행위를 폭로하는 선전물들을 보충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4일 스페리에 스페인에서도 반미시위가 진행되었다. 시위에는 스페리공산당, 스페리에조선선선회, 스페리에주재사상연구소 인사와 대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침략군대를 철수하며 조선전쟁정세를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조선반도의 공화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그 무슨 《인권문제》 등을 꺼들면서 반공화국모락사건을 악용하며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단죄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군 철수》, 《미국의 전쟁책동 중지》, 《미국의

여러 나라에서 반미시위, 성명 발표

여러 나라에서 반미시위, 성명 발표

여러 나라에서 반미시위, 성명 발표

여러 나라에서 반미시위, 성명 발표

구 바 국 가 리 사 회 위 원 장 지역나라들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 강조

구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로드리게스를 비롯한 지역나라들에서 사회불안정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시도들을 나타내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제국주의세력의 공작이 개시되었다고 말했다.

구바정부는 자주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잡념이나 매혹적 배격자를 없애고 지역나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반대하여 집회

일본의 도쿄에서 최근 당국이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2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연일 당국자를 일본을 무장분쟁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대로씨야제재철회 주장

발기아수상 보이코 보리소브가 최근 로씨야의 마스통선과의 회에서 대로씨야제재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기구들의 그릇된 처사 비난

로씨야국가의회의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기구들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국제기구들이 판례도가 판을 치는 공들들로 전락되고있으며 거기서 채택되는 결정들은 법의 엄격성이

적극화되고있는 다극세계건설노력

적극화되고있는 다극세계건설노력

적극화되고있는 다극세계건설노력

적극화되고있는 다극세계건설노력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적들의 군사적위협 비난

이란이슬람교혁명군위대 총사령관이 11일 자기 나라에 대한 적들의 군사적위협을 비난하였다. 그는 적들의 위협은 한갓 빈말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적들의 군사적위협 비난

적들의 군사적위협 비난

적들의 군사적위협 비난

적들의 군사적위협 비난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

세계적인 글치거리-가짜약품의 성행